

The top half of the cover features a dark blue background. On the left, a white flag with the JRI logo (a stylized 'J' and 'R' with an 'I' inside a circle) is waving. To the right of the flag is a glowing, semi-transparent globe showing the continents of Africa, Europe, and Asia. The globe is surrounded by several translucent, rectangular panels that appear to be floating or part of a larger structure.

4th Week, August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4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토론회, 기초자치단체, 청년, 생태, 철도
경제·관광	여행, 수출, 관광객, 소상공인, 디지털
지역·사회	종다리 태풍, 장애인, 폭염, 예방, 거주

※ 분석 기간 : 8월 19일~8월 23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8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토론회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토론회 - 제주-서울 철도망 구축 토론회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청년	- 국가-제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 -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생태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추진
	철도	- 제주-서울 철도망 구축 논의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여행	- 제주관광 트렌드 변화 - 국내 여행 인기
	수출	- 제주 수출 동향
	관광객	- 관광객 유형 변화 - 싱가포르 관광 홍보
	소상공인	- 금융지원 및 경제적 어려움
	디지털	- 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대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종다리 태풍	-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
	장애인	- 장애인 학대 사건
	폭염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급증
	예방	- 다이빙 사고 예방
	거주	- 퇴원환자 안심 재가복귀 지원사업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중국

- ✓ 중국 국무원은 11기의 신규 원전을 포함한 5개의 원자력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역대 최대 승인 건수를 기록. 현재 중국은 총 5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승인은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
- ✓ 베이징시는 《2024~2025년 베이징 ‘AI+’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로봇,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5대 영역에서 초거대 AI 모델 관련 기술 개발과 응용 생태계 조성 추진
- ✓ 중국 국가금융감독총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부동산 화이트 리스트’에 5,392건의 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들 프로젝트에 상업은행 대출로 1조 4천억 위안(약 262조 원)을 지원하기로 함. 이 리스트는 자금난을 겪는 우량 부동산 개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 부동산 개발 대출 잔액은 연초보다 4천억 위안 증가
- ✓ 상하이시는 《저고도 경제산업 고품질 발전 행동방안(2024—2027년)》을 발표하며, 저고도 경제 관련 핵심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500억 위안(약 9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상하이시는 창장삼각주 도시와 연합해 저고도 연결 도시를 구축하고,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와 산업용 드론 개발을 지원하며, 저고도 물류 드론 분야를 선도할 예정
- ✓ 중국의 많은 관광객이 대도시 대신 지린 옌지, 윈난 다리, 신장 부얼진, 광시 양취 등 소도시와 농촌을 선호하며, 교통 편리성과 자유롭고 가성비 높은 여행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영향이 큼. 소도시와 농촌의 소비재 소매액 비중이 상승하고, 호텔 예약률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관광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
- ✓ 중국 소비시장에서 ‘Z세대’의 소비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20% 미만이지만 소비 규모는 전체의 40%를 차지함. ‘Z세대’는 개성을 드러내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비를 선호하며, 소그룹에서 함께 소비하며 소속감을 추구

-
-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종합 이용 규범을 발표하며, 기업에 배터리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을 요구함. 기업은 폐수 재활용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며, 폐배터리의 출처를 확인하여 계단식 재활용에 적합한지 검증 필요

○ 말레이시아

- ✓ GG56코리아는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루의 포레스트시티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말레이시아 최초의 한국문화타운을 조성할 계획임. 이 프로젝트는 한국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국제 문화 지구, 고품질 주거지 개발 등 포함
- ✓ 파항 주지사 완 로스디 완 이스마일은 게벵 지역에 약 21억 링깃 규모의 쿠안탄 해양 허브(KMH)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함. 이 프로젝트는 203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약 17,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장 및 관련 산업 시설 건설을 통한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 말레이시아 투자산업무역부는 2030년까지 약 3,000억 링깃 규모의 녹색 투자를 유치할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는 녹색 투자의 핵심 부문으로, 투자산업무역부는 이를 다른 부문으로도 확대할 필요성 강조
- ✓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태국과의 무역 및 투자 사절단 활동을 통해 약 83억 3,000만 링깃 규모의 잠재 수출 계약을 확보함. 자프를 압둘 아지즈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할랄 부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함.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경제 협력과 무역 흐름 촉진에 집중할 계획이며, 양국은 2027년까지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목표 설정

○ 베트남

- ✓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자유무역지대(FTZ)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함. 이 FTZ는 첨단 기술, 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예정
-

○ **싱가포르**

- ✓ 호주 정부는 북부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약 4,300km 수중 케이블을 통해 싱가포르로 전달하는 ‘호주 아시아 파워링크’ 프로젝트를 승인함.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내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한 환경 조건을 준수해야 함. 최종 투자 결정은 2027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2030년 초부터 전력 공급이 시작될 전망

○ **태국**

- ✓ 태국 방수 그랜드역에서 말레이시아 파당 베사르 및 버터워스로 연결되는 신규 열차 노선이 승인됨. 또한, 마이사와스디 관광열차가 하트 야이에서 수랏타니역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이는 양국 간 관광 활성화와 수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일본**

-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로, 홋카이도의 수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가리비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음. 이에 홋카이도는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으로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베트남은 10배, 태국은 17배 증가
- ✓ 홋카이도 전력은 11월에 토마토아쓰마 화력발전소 4호기에서 석탄과 반탄화된 바이오매스 연료인 ‘블랙 펠릿’을 혼합하여 발전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할 예정임. 블랙 펠릿은 석탄 대비 10% 비율로 혼합되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함. 이번 실험은 홋카이도 전력에서 처음 시행되는 바이오매스 혼소 시험으로, 약 1주일 동안 진행됨. 실험 후 사업성을 평가해 2030년까지 혼소를 확대할 계획이며, CO2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 혼소도 추진할 예정
- ✓ 후쿠시마시는 2025년 4월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임. 조례는 금지 구역과 억제 구역을 설정하여 산림 벌채로 인한 경관 악화와 토사 재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임. 억제 구역

에서는 주민 협의가 의무화되며, 문제 시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이행 시 사업자 명을 공개 예정

- ✓ 미야기현은 숙박세 과세 기준을 당초 3,000엔에서 6,000엔 이상으로 상향하여, 1인 1박당 300엔을 징수하기로 함. 센다이시에서는 현이 100엔, 시가 200엔으로 나누어 징수하며, 수학여행과 유치원 행사는 면세 대상임. 숙박세로 연간 약 11억 엔의 세수를 예상하며, 이를 관광지 경관 정비와 숙박 시설 개선에 사용할 예정
- ✓ 치바현 소데가우라시는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데마형 승합택시 ‘초이소코가우라’의 운행을 10월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2022년 나가우라 지역에서 시작한 실증 실험을 바탕으로, 현재 2대에서 3대로 운행 차량을 늘리고, 500개 이상의 정류장에서 이용 가능하게 함. 운임은 1회당 300엔, 구역 간 이동 시 600엔이며, 2027년 9월까지 실증 기간을 통해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
- ✓ 도야마현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4회 인구 미래 구상 본부 회의에서 관계 인구 확대 방안을 논의함. 헬스 투어리즘 도입과 도시 거주자를 위한 보육원 체험 학습 등 다양한 모델이 제안되었으나, 의료 인력과 보육사 부족으로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앞으로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마련할 예정
- ✓ JR 서일본과 호쿠리쿠 3현은 ‘호쿠리쿠 데스티네이션 캠페인’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진행하며, 츠루가와 기노사키 온천 간 관광 열차 ‘하나아카리’를 주말에 운행할 계획임. 열차는 약 5시간 소요되며, 지역 특산 도시락을 판매함. 캠페인은 호쿠리쿠 신칸센 츠루가 연장 개통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로 목표로 설정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8월 19일~8월 23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823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274건, 경제·관광 분야 186건, 지역·사회 분야 363건임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제주

○ 274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토론회, 기초자치단체, 청년, 생태, 철도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토론회	-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토론회 · 일시: 8월 27일 오후 2시,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 · 주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 · 목적: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기초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 · 주요 참가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광배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원 등 재정 전문가들 - 제주-서울 철도망 구축 토론회 · 일시: 8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 주최: 제주도의회 정민구, 양영식, 송창권 의원이 공동 주최 · 내용: 제주와 서울을 잇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고, 제주의 물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 기타: 철도망 구축 자체에 대한 결정이 아닌,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임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 · 목적: 도민 자치권 강화와 세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주요 내용: 3개 기초자치단체 간(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해소 필요성 강조 · 관련 활동: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촉구하고, 서명 운동 및 거리 서명 운동 등을 전개
	청년	- 국가-제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 · 기간: 8월 26~28일, 3차 신청 접수 ·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지원: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 제공, 사용기관에서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 -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제주청년센터가 '청년의 품격-자소서 & 면접 컨설팅' 교육을 무료로 지원 ·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을 촉진
	생태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추진 ·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 ·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 ·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을 위한 체계적인 보존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철도	- 제주-서울 철도망 구축 논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서울간 철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주요 이슈: 제주 물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철도망 구축의 가능성과 장단점을 탐색 · 주최: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도민 의견 수렴 예정

- 186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여행, 수출, 관광재, 소상공인, 디지털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여행	- 제주관광 트렌드 변화 · 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인 여행객이 소규모 MZ세대 중심으로 변화 ·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특화 마케팅 필요 · 제주도의 여행객 대응 전략으로 팸투어 및 체험 위주의 일정 추진 - 국내 여행 인기 · 제주가 국내 여행지 중 언급량 1위를 기록 · '워케이션(Work+Vacation)'과 같은 중·장기 체류형 여행이 주목받고 있음 · 제주관광공사에서 가을 제주 여행지 추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수출	- 제주 수출 동향 · 7월 제주 수출은 13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4% 감소했으나, 반도체와 수산물, 화장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실질적 수출은 2.3% 증가 · 반도체 수출이 주요 품목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 · 수산물 수출도 10% 증가, 특히 넙치 수출이 주요 시장에서 호조 · 농산물 수출은 부진, 음료와 주류 수출 급감이 원인
	관광객	- 관광객 유형 변화 ·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개별 여행객과 MZ세대 비중 증가 · 중국인 관광객들이 개별 여행을 선호하며, SNS와 여행 정보 채널을 통해 일

	- 정을 계획하는 경향 · 제주시가 9~10월 중국 화동지역 대학생 대상 제주 여행 설명회 개최 예정 - 싱가포르 관광 홍보 · 제주시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가 싱가포르 '나타스 홀리데이 2024'에 참가해 제주를 홍보 ·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안 논의 중
소상공인	- 금융지원 및 경제적 어려움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인하(3.0%에서 2.5%) ·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특별보증 대출 시행, 총 500억 원 규모로 재원이 소진 · 고금리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 폐업 증가
디지털	- 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대 · 제주 지역 관광지 및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 (예: 제로페이 QR코드) 사용 확대 · 관광지에서 디지털 마케팅 활용도 증가, 중국인 관광객의 개별 결제와 경험 소비 촉진

○ 363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종다리 태풍, 장애인, 폭염, 예방, 거주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지역·사회	종다리 태풍	-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 · 태풍 종다리는 제주를 통과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했으나 큰 피해는 없었음 · 서귀포시 삼달리와 애월읍 상가리에서 전신주 늘어짐과 나무 전도 신고가 발생 · 고수온과 폭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고온 다습한 공기를 유입시키며 폭염과 열대야를 지속시킴
	장애인	- 장애인 학대 사건 · 제주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여 도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 · 원장은 입소자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인권보장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거주시설의 폐쇄적 운영과 관리자의 상하 수직적 관계가 문제로 지적됨
	폭염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급증: · 제주지역에서 온열질환자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여 100명에 달함 · 주로 낮 12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발생 빈도가 높음 ·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 준수를 강조: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한 환경 유지,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 ·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례도 보고됨
	예방	- 다이빙 사고 예방: · 제주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일부는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 ·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다이빙 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나 법적 권한 부족으로 단속 어려움 · 위험 지역에서는 계도 활동과 안전 요원 배치로 예방 노력 중
	거주	- 퇴원환자 안심 재가복귀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의 급성기질환 퇴원환자에 대한 재가 복귀 지원사업을 시범운영 · 급성기 치료 후 재가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 환자들의 의료와 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 · 2026년 4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재입원을 감소 기대 ·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도내 주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5개의 원자력 프로젝트 승인으로 원전 확대 - 중국 국무원은 2024년 8월 19일 열린 상무회의에서 5개의 원자력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총 11기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안을 포함함. 이는 연도별 건설안 승인 건수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임. 중국은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연간 10기 이상의 원전 건설안을 승인했으며, 2019년에는 6기, 2020년에는 4기, 2021년에는 5기를 승인한 바 있음 - 국무원은 2024년 8월 11일 발표한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녹색전환 가속화에 관한 의견》에서 풍력, 태양광, 수력, 해상 풍력, 원전 등 청정에너지 기지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명시하며 연해안 지역에서의 원전 확대를 강조함 - 중국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중국은 총 5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음. 이번 승인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베이징, ‘AI+’ 행동계획 발표로 AI 응용 생태계 조성 추진 - 최근 베이징시는 《2024~2025년 베이징 ‘AI+’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로봇,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5대 영역에서 초거대 AI 모델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AI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여 중요 업종의 기술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힘. 이를 통해 초거대 AI 모델 응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 로봇 분야에서는 혁신 자원을 통합하여 실제 수요에 맞춘 ‘임바디드 AI’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며,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한 교육 자료와 방법론 등을 통합한 AI 모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학과와 교육 단계에 적용할 계획임.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감독 시스템 혁신, 병원-의사 연구성과 수익 균형, 스마트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베이징 의사’ 라는 AI 모델 플랫폼을 만들기로 함

- 문화 분야에서는 문학 작품, 역사적 건축물, 문화 유적, 관광지 정보 등과 AI 기술을 결합해 문화 서비스를 위한 AI 모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교통 분야에서는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도로, 차량, 인구 유동, 기상 등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차량-도로-클라우드-네트워크 통합 기술을 개선하여 스마트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임

○ 중국, 주택 부동산 화이트리스트로 부동산 시장 지원 강화

- 중국 국가금융감독총국은 2024년 8월 21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주택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사업에 총 5,392건의 개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 지원 규모가 1조 4천억 위안(약 262조 원)에 달한다고 밝힘. 이 화이트리스트는 지방정부가 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량 부동산 개발 업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2024년 1월,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금융감독총국은 지역별로 도시 부동산 융자 협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며, 중국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2024년 8월 말 기준, 부동산 개발 사업 대출 잔액은 연초보다 4천억 위안(약 75조 원) 이상 증가함
-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상업은행의 신규 개인 주택대출 규모는 3조 1천억 위안(약 583조 원)으로 나타남. 금융감독총국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부동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지원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힘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상하이, 저고도 경제산업 고품질 발전 행동방안 발표

- 2024년 8월 16일, 상하이시는 《상하이시 저고도 경제산업 고품질 발전 행동방안(2024—2027년)》을 발표하며, 저고도 경제와 관련된 첫 번째 정책 문건을 공개함. 상하이는 2027년까지 저고도 경제 관련 핵심 산업 규모를 500억 위안(약 9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창장삼각주 도시와 연합하여 전국 최초로 성(省)들을 저고도로 연결하는 도시를 구축할 계획임
-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하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전국 저고도 경제산업 종합 시범 구역을 조성하고,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분야의 선두 기업을 육성하며, 4인~6인용 eVTOL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예정임. 또한, 산업용 드론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선두 기업을 키우고, 중장거리 대용량 저고도 물류 드론 개발도 지원할 계획임
- 저고도 경제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나설 예정임. 대·중·소형 이착륙 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고, 상하이 진산구와 칭푸구에 범용 공항 건설을 연구할 계획임. 이를 통해 상하이는 저고도 경제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임

○ 소도시와 농촌, 중국 내 인기 여행지로 부상

- 올해 여름, 많은 관광객이 대도시 대신 지린 옌지, 윈난 다리, 신장 부얼진, 광시 양취 등 소도시와 농촌을 여행지로 선호함. 업계 관계자들은 소도시와 농촌이 인기 있는 이유로 교통 편리성과 여행 방식의 변화를 꼽으며, 젊은 관광객들이 자유, 가성비, 경험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지역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과 향 단위의 소비재 소매액이 사회 소비재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여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휴가철 4~5선 도시 및 하위 현 단위의 호텔 예약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고급 호텔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함. 현 단위 지역은 중국 국토 면적의 90% 이상, 인구는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해 관광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현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2022년부터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소도시와 농촌 관광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소비시장, ‘Z세대’ 소비자 주목

- 중국 소비시장에서 ‘Z세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소비가 주목받고 있음. 중국 국가통계국의 2018년 데이터에 따르면, 1995년~2009년에 태어난 ‘Z세대’는 전체 인구의 20%에 못 미치지만, 이들의 소비 규모는 전체의 40%를 차지함. 이들은 사회적 교류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소비에 집중하며, 개성을 드러낼 수 있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비를 선호함
- 덩잉편 중국 런민대학 경영대학원 부교수는 ‘Z세대’가 온라인 소그룹에서 함께 소비하며 소속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함. 또한, 중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 유행을 결합한 ‘신중식’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토종 브랜드와 상품을 선호하는 애국주의 소비 흐름인 ‘귀차오’ 열풍의 영향임. ‘귀차오’ 소비 시장에서는 ‘주링허우(90년대 이후 출생자)’와 ‘링링허우(2000년대 이후 출생자)’의 기여도가 74%에 달함
- 여행과 서비스 시장에서도 ‘Z세대’의 특징이 두드러지며, 이들은 일반적인 여행보다 ‘시티 워크’나 ‘역방향 여행’ 등 자신만의 독특한 체험을 중시함. 또한, 공연 관람을 위해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종합 이용 규범 발표 - 2024년 8월 1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폐배터리 종합 이용 업종 규범 조건(2024년 버전)》을 발표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을 시작함. 문건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용 배터리 종합 이용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배터리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 모니터링 및 배터리 회수 이용 추적 종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함. 또한, 배터리의 운송, 해체 등 단계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함 - 기업은 배터리 공정용 폐수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매년 폐배터리 종합 활용 사업 매출의 3% 이상을 연구개발 및 공정 개선에 투자해야 함. 또한, 폐배터리의 출처를 확인하여 계단식 재활용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신에너지 자동차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함. 계단식 재활용은 배터리의 잔여가치와 성능 상태에 따라 통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적합한 분야에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뜻함 -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배터리 설비용량도 급증하고 있음.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배터리 누적 설비용량은 244.9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함. 이러한 배터리 수요 증가는 폐배터리의 종합 이용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말레이시아	○ GG56코리아, 말레이시아 포레스트시티에 한국문화타운 구축 - 한국의 글로벌 IT 플랫폼 전문기업 GG56코리아는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의 포레스트시티에 약 10억 달러(약 1조 3,500억 원)를 투자해 말레이시아 최초의 한국문화타운을 조성할 계획임. 이번 투자는 GG56코리아가 포레스트시티의 마스터 개발사인 컨트리 가든 퍼시픽뷰 에스디엔비디(CGPDV)와 체결한 합의각서(MoA)에 따른 것임 - K-컬처타운 프로젝트의 핵심 구성요소로는 한국 콘텐츠 제작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스튜디오 설립, 국제 문화 지구 구축, 고품질 주거지 개발 등이 포함됨. 포레스트시티는 혁신, 문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함 - GG56코리아는 이번 협업을 통해 포레스트시티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글로벌 선도 여행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포레스트시티는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주거, 상업, 산업 공간을 통합한 스마트, 녹색, 지속 가능한 도시로 부상할 계획임 ○ 파항 주지사, 쿠안탄 해양 허브 개발 계획 발표 - 파항 주지사 완 로스디 완 이스마일은 게벵 지역에 약 21억 링깃 (약 6,400억 원) 규모의 쿠안탄 해양 허브(KMH)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함. 이 프로젝트를 통해 파항은 말레이시아 해양 활동의 중심 허브로 자리잡아 무역과 산업 운영을 지원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2034년까지 완공될 예정임 - KMH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약 1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장 및 관련 산업 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로 지역 및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 프로젝트는 파항 주정부의 포괄적인 비전의 일환으로, 지역 투자자를 유치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계획됨. KMH의 개발은 동해안 철도(ECRL)와 쿠안탄 국제공항 등 다른 주요 프로젝트와 함께 파항을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주 중 하나로 만들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3,000억 링깃 규모의 녹색 투자 아젠다 발표 - 말레이시아 투자산업무역부는 2030년까지 약 3,000억 링깃(약 91조 2,000억 원) 규모의 녹색 투자를 유치할 목표를 발표함. 자프를 압둘 아지즈 장관은 이러한 투자가 말레이시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신재생에너지(RE)와 전기차(EV)는 말레이시아 녹색 투자의 핵심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부문으로, 신재생에너지는 2019년까지 녹색 투자의 약 60%, 전 기차는 2020년~2023년 기준 약 58%를 차지함. 자프를 장관은 녹색 투자를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으로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말레이시아 투자산업무역부는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지역 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관행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재정 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 태국과 주요 수출 계약 체결

-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2024년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태국 에서 진행된 무역 및 투자 사절단 활동을 통해 약 83억 3,000만 링깃 (약 2조 5,300억 원) 규모의 잠재 수출 계약을 확보함. 자프를 압둘 아지즈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간의 오랜 협력 관계를 긍정적 으로 평가하며, 특히 할랄 부문의 잠재력을 강조함
-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역내 경제 협력 증진과 원활한 무역 및 투자 흐름 촉진에 중점을 둘 계획임. 자프를 장관은 태국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2025년 아세안 공식 회의와 관련된 민간 주도 행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지정학, 지역 안보, 디지털화, 기후 변화 등 이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회의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태국으로 수출할 잠재 제품으로 액 화천연가스(LNG), 원유, 화학 용매, 역청, 자동차 부품, 비료, 고분자 수지 및 전자 부품 등을 지목함. 또한,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무역, 국경 연계성, 할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약 300억 달러(약 39조 9,700억 원) 규모의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함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 다낭, 신규 자유무역지대 개발 계획 발표 -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자유무역지대(FTZ)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함. 이번 개발 계획은 다낭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 - 다낭의 신규 자유무역지대는 첨단 기술, 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임. 또한, FTZ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여 기업들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낭을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 허브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싱가포르	○ 호주,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태양광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 승인 - 호주 정부는 북부 지역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약 4,300km 규모의 수중 케이블을 통해 싱가포르로 전달하는 ‘호주 아시아 파워링크(Australia Asia PowerLink)’ 프로젝트를 승인함. 텐야 플리베르섹 호주 환경부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국내외 신재생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프로젝트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선 케이블(Sun Cable) 태양광 발전소는 싱가포르 내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임. 또한, 프로젝트는 멸종 위기종인 큰빌비를 포함한 지역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환경 조건을 준수해야 함 - 최종 투자 결정은 2027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공급은 2030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선 케이블은 싱가포르 에너지 규제 당국과 케이블 부품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해역 내 케이블 건설을 협의 중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 태국과 말레이시아, 새로운 열차 노선 승인 - 2024년 8월 20일 말레이시아 사바에서 열린 '제42차 KTMB-SRT 공동회의'에서 태국 방수 그랜드역에서 말레이시아 파당 베사르 및 버터워스로 연결되는 신규 열차 노선이 승인됨. 이번 회의는 여행 및 화물 운송 부문을 강화하여 양국의 경제와 관광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하트 야이에서 종착하는 마이사와스디 관광열차 노선이 승객 수요 증가로 인해 수랏타니역까지 연장될 예정임. 이 연장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관광 활성화와 수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규 노선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작업 그룹이 설립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태국-라오스-중국을 연결하는 아세안 익스프레스 열차의 운행 빈도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됨
일본	○ 중국 금수조치 1년, 홋카이도 수산물 수출 절반 감소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한 지 1년이 되었음. 이로 인해 홋카이도에서의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가리비의 영향이 컸음. 이에 따라 홋카이도는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으로의 판로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음 - 홋카이도는 일본 전체 가리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며, 중국 금수조치 이전에는 가리비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했음. 수출이 급감하자, 홋카이도의 수산 가공 업체들은 껍질 제거 등 가공 능력 향상에 나섰고, 동남아시아와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음. 2024년 1~6월 기준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베트남은 10배, 태국은 17배로 증가함 -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홋카이도산 가리비를 멕시코에서 가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판매하는 새로운 수출 루트를 개척 중임. JETRO는 중동과 동유럽에서도 시장 확대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홋카이도산 가리비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국내외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홋카이도 전력, 석탄 화력에 바이오매스 혼소 11월 실증 실험 예정

- 홋카이도 전력은 아쓰마초에 위치한 토마토아쓰마 화력발전소 4호기에서 석탄과 반탄화된 바이오매스 연료인 '블랙 펠릿'을 혼합하여 발전하는 실증 실험을 11월에 시작할 예정임. 블랙 펠릿은 석탄 대비 10% 비율로 혼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석탄 화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블랙 펠릿을 사용한 화력 발전은 홋카이도 전력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4호기에서 약 70만 킬로와트의 출력을 목표로 하며, 혼소 시험은 약 1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임. 이번 실험을 통해 석탄과 혼합해도 문제 없이 발전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임
- 블랙 펠릿은 목재를 증기로 구워 반탄화시킨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의 일종으로, CO2를 흡수하며 성장한 나무를 원료로 하여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CO2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일반 목질 펠릿보다 열량이 크고, 방수성이 있어 석탄처럼 노천에 쌓아둘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1주일간의 실증 시험 후 사업성을 평가하고, 2030년경까지 토마토아쓰마 화력발전소 4호기에서의 혼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홋카이도 전력은 또한 4호기에서 2030년까지 CO2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20% 혼합하여 발전할 계획도 세우고 있음

○ 후쿠시마·미야기, 기업·대학과 협력해 생물다양성 확보

- 도호쿠 대학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을 추진하는 산관학 연계가 활성화되고 있음. 후쿠시마현은 2030년까지 현토의 30% 이상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세우고,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보호에 나서고 있음. 2024년 3월에는 가시마가 소유한 산림과 렌고의 공장 내 비오토프가 국가의 '자연공생 사이트'로 인증받았으며, 지속적인 식림 활동이 평가받고 있음.

- 미야기현에서는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도호쿠 대학을 중심으로 27개 단체가 참여하는 '네이처 포지티브 발전 사회 실현 거점'이 발족됨. 이 거점은 자연의 가치를 시각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담보하는 인증 제도를 만들어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아키타현 요코테시의 안모토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제니타나고와 같은 희귀종의 보호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제니타나고는 한때 도호쿠와 간토 지역에 널리 서식했으나, 현재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함

○ 후쿠시마시,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규제 조례 2025년 4월 시행

- 후쿠시마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2025년 4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8월 22일 발표함. 이 조례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가 설치를 제한할 금지 구역과 설치를 허가하는 억제 구역을 설정할 예정임
- 이 조치는 산림 벌채로 인한 경관 악화와 토사 재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 추진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음. 코바타 히로시 시장은 “조례화로 실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함
- 억제 구역에 설비를 설치할 경우, 주변 주민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문제 발견 시 시가 설비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 명을 공개할 방침임. 8월 29일 열리는 시 환경심의회에서 조례안의 골자를 제시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2025년 3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임

- 후쿠시마시는 2023년 8월, 태양광 발전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노 모어 메가솔라” 선언을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왔음. 2024년 6월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시내 센다쓰산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진흙물이 도로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민들이 토사 재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시는 효과적인 대책을 검토 중임

○ 미야기현, 숙박세 과세 기준 6,000엔 이상으로 상향

- 미야기현은 8월 21일 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호텔과 여관 등 숙박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에 대해 1인 1박 6,000엔 이상의 숙박요금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밝힘. 이는 당초 3,000엔 이상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센다이시와의 조정을 반영한 결과임. 현과시는 각각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임
- 숙박세는 현 내에서 일괄적으로 1인 1박당 300엔을 징수하며, 센다이시 내에서는 현이 100엔, 시가 200엔으로 나누어 징수함.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유치원의 행사 등은 면세 대상으로 함
- 현 담당자는 “향후 현 내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으므로, 관광정책을 확충하고 교류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미야기현은 숙박세를 통해 연간 약 11억 엔의 세수를 예상하며, 이를 관광지 경관 정비와 숙박 시설 시스템 개선 보조금으로 활용할 계획임
- 과세 기준 금액은 숙박 사업자들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숙박세 도입에 반대하는 숙박사업자들의 의견을 지적하기도 했음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치바현 소데가우라시, 데마ンド 택시 시 전역으로 확대 운행

- 치바현 소데가우라시는 일부 지역에서 실증 운행 중인 데마형 승합 택시 ‘초이소코가우라’의 운행 지역을 10월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운전이 어려운 사람이나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 방문이나 쇼핑 등의 외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 ‘초이소코가우라’는 2022년 고령자의 외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 북부의 나가우라 지역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했으며, 버스 및 택시 업계의 운전자 부족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 지역을 확대하게 됨
- 현재 2대가 운행 중이나, 10월부터는 3대가 시내 5개 전 지역을 운행할 예정이며, 500곳 이상의 정류장에서 승하차할 수 있음. 운임은 1회당 300엔이며, 시내를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 간 이동 시 600엔을 지불함. 운행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함
- 실증 기간은 2027년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이용 상황에 따라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시 기획정책과 담당자는 “나가우라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데마 교통 실증을 통해 각 지역에 적합한 교통 모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함

○ 도야마현, 인구 미래 구상 회의에서 관계 인구 확대 방안 논의

- 도야마현은 8월 21일, 제4회 도야마현 인구 미래 구상 본부 회의를 열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인구 확대를 통해 정주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재 활용 방안을 모색함
- 관계 인구 확대 방안으로는 헬스 투어리즘 도입과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보육원 체험 학습 등 다양한 모델이 제안됨. 그러나 의료 인력과 보육사 부족으로 인해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앞으로의 회의에서 방향성을 구체화할 예정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JR 서일본, 츠루가-기노사키 온천 관광 열차 운영

- 호쿠리쿠 3현과 JR 서일본 등은 8월 22일, 호쿠리쿠 지역으로의 관광 유치를 목표로 하는 '호쿠리쿠 데스티네이션 캠페인'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발표함. 이 기간 동안 JR 서일본은 츠루가(후쿠이현)와 기노사키 온천(효고현) 간에 관광 열차를 운행하고, 3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임. 3월에 호쿠리쿠 신칸센 츠루가 연장 개통으로 호쿠리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기회를 활용해, 리피터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 JR 서일본은 츠루가와 기노사키 온천을 약 5시간에 걸쳐 연결하는 관광 열차 '하나아카리'를 운영할 계획임. 기간 중 주말에 운행하며, 후쿠이현의 브랜드 소고기 '와카사규'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도시락 등을 판매할 예정임. 예약은 9월 5일부터 받으며, 탑승 정원은 약 50명, 츠루가-기노사키 온천 간 요금은 그린차 지정석 기준 1만 640엔임
- 8월 22일, 호쿠리쿠 3현과 JR 서일본 등으로 구성된 캠페인 실행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시카와현의 하세 히로시 지사는 2015년 호쿠리쿠 신칸센 가나자와 개통 당시와 비슷한 캠페인을 실시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캠페인 기간 대비 30% 증가한 고객 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JR 서일본 가나자와 지사장 이시하라 토시노부 집행 임원은 “츠루가 연장 효과를 정착시키는 최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